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II

201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201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Ⅱ

Contents

1과	전설적 맹인 전도인 백사겸	4
2과	여성농촌운동가 황애덕	9
3과	수원 민족운동의 중심 김세환	14
4과	개화기의 신여성 하란사	19
5과	사회 개혁운동가 조병옥	24
6과	여성독립운동가 박현숙	29
7과	한국 오페라의 선구자 김자경	34
8과	일장기 제거의 주인공 이길용	39
9과	‘바위고개’ 작곡가 이흥렬	44
10과	한글 사랑과 나라 사랑 김윤경	49
11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회영	54
12과	사랑의 인술 김병서	59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Ⅱ”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해는 다사(多事)해도 다난(多難)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을 유지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전반적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떠나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의 사역이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시스템 중심이 되려면 평신도의 역할, 그 중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 지도자들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이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평신도 월례회공과〉는 귀한 평신도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집필과 편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회평신도국 직원들,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해가 시작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는 2014년을 만들어 갑시다.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의 빛나는 평신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한양수 감독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감리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평신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013년 사회평신도국은 주제를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평신도”라고 정하고 ‘평신도 대학’ ‘평신도주일 성수’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기술자원봉사’ ‘생명나눔운동’ ‘일자리창출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감리교회와 평신도들이 말씀대로 쓰임 받아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2014년 사회평신도국 주제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인 동시에 교회와 사회 속에서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의 과제입니다.

2014년 <평신도 월례회공과>는 지난 해와 같이 역사적으로 감리교회의 자랑인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12인을 소개합니다. 사회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들의 삶을 통하여 감리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2014년 <평신도 월례회공과>를 집필해 주신 조이제 목사님과 실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박은애 부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과를 사용하는 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사회평신도국 총무직무대리 선철규

1 과

전설적 맹인 전도인 백사검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497장(통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사도행전 1:6~11
- 참고성경 : 마태복음 28:18~20
- 요 절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한국감리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선거 과정 등으로 내적인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교회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감리교인인 우리가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인 모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뒤따르는 생

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평신도 월례회공과>는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감리교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백사겸(白士兼)입니다. 백사겸은 맹인 전도인으로, 고양 파주 장단 개성 등에 복음을 전한 전설적인 전도인입니다.

본론

백사겸은 1860년 평안남도 평원군 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었고 아홉 살 때 눈병에 걸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과 함께 구걸하던 그는 당시 맹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계를 위해 점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4년을 열심히 공부하여 15세에 복술선생에게서 ‘산통’(算筒)과 ‘죽장’(竹杖)을 물려받아 독립한 점쟁이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양 서울 원주 이천 등 발 닿는 대로 옮겨 다니다가 ‘이’씨 성을 가진 양가집 딸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경기도 고양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읍 백 장님’으로 불리며 점술가로서의 이름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치로 남을 속여 점을 치는 기술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그는 나름대로 ‘참 도’를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래 방법인 생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일월성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사찰이나 교당을 찾지 않고도 천지를 주재하는 신에게 소원을 빌던 가장 보편적인 행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18년이나 계속 했지만 도를 깨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100일 철야기도에 들어갔지만, 100일 치성에도 속 시원한 응답이 없어 마음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를 마친 날 아침, 낮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감리회의 매사인 김제옥이 전도하려고 그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김제옥은 <인가귀도>(引家歸道)라는 제목의 전도문서를 그에게 주고 돌아갔습니다. 전

도문서를 받았을 때 그는 “독한 벌레가 손에 닿은 듯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필이면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 예수교 전도인을 만났으니 그는 100일 기도를 ‘헛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기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기도를 새로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백사점은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은 그에게 은산통을 쥐어주고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던 백사점은 예수님이 주고 간 은산통을 전도인이 주고 간 전도문서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인가귀도>를 꺼내 읽게 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위안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회개한 후 복음 전도에 평생을 바친 그 문서 속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백사점은 곧바로 접치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김제옥에게 기별하여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몇 달 전에 그대가 주고 간 전도지를 다 읽었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 오는 주일부터는 나와 같이 회당에 가세.” 그 다음 주일부터 백사점은 아내와 고양읍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간 날, 그는 개종을 기념하여 점칠 때 쓰던 복과 산통을 선교사에게 기증하였고, 또 자원해서 공중 기도를 요청하여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1897년 5월 2일은 한국감리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이날 남감리회의 첫 교회인 고양읍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의 첫 열매인 세례인들도 배출하였습니다. 백사점과 부인(엘리사벳), 두 아들(남석, 남혁)이 세례인에 포함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세례 교인이 된 후 백사점은 자신에게 빛을 진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불의하게 모은 재산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천주학에 미쳤다’고 조롱하였지만 진리를 깨달은 백사점은 이런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구와 물건을 처분하니 3천냥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강도를 당해 돈을 몽땅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일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성경을 듣고 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비상한 기억력이 있어 성경 말씀을 세 번만 읽고 들려주면 다 암송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을 가난한 친구에게 거저 넘겨주고 가족과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처 없이 발 닿는 대로 옮겨 다니다가 하룻길 40리를 간 후 처음으로 행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 교인들이 '회개한 고양읍 백 장님' 소문을 듣고 그 가족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쌀과 반찬 등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를 생애 표어로 삼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개종에 관한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간증과 함께 그가 작사한 노래인 '회심행도가'(回心行道歌)는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 요청이 쇄도하자, 남감리회에서는 그를 정식 전도인으로 임명하여 전도 활동에 매진하게 하였습니다. 1899년부터 리드 선교사와 함께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전도구역은 개성, 장단 외에도 파주, 철원, 김화, 사리원, 풍덕, 평강, 평양 등에 이르렀고, 장단읍 교회, 감바위교회, 개성남부교회 등을 직접 설립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쉼신과 돛자리를 만들어 팔면서 전도를 계속하다가 1940년에 별세하였습니다.

결론

양주삼 감독이 그를 '한국의 삭개오'라 불렀듯이 백사점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바꾼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

을 속이는 점치는 일을 곧바로 그만두었고,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산도 처분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백사점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전도를 위한 주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후 점쟁이에서 전도인으로 변화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 올 한 해 감리교와 우리교회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 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500장(통 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2과



여성농촌운동가 황애덕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325장(통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기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마태복음 25:14~30
- 참고성경 : 고린도전서 4:1~5
- 요 절 :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마 24:21)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2월의 인물은 여성농촌운동가인 황애덕(黃愛德)입니다. 세례명이 '에스더'라 황애시덕(黃愛施德) 혹은 황에스더로도 부릅니다. 황애덕은 일찍부터 신앙적으로 양육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여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학식을 쌓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지만 황애덕은 자신이 받은 재능과 혜택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사회와 나라를 위해 사용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성교육과 농촌운동, 여성단체 등을 통해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사회가 안고 있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당면 과제를 여성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본론

황애덕은 1892년에 평남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개화된 아버지 와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으며, 노블 부인이 설립한 평양 정진소학교와 이화학당 중등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진실하고 열심이 있었으며, 창의성과 지도력이 뛰어나 급우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황애덕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평양으로 가서 송의여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913년에는 송의여학교에서 애국심이 투철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항일 비밀결사대인 '송죽회(松竹會)'를 조직하였습니다. 송죽회는 한글교육과 국사교육 등의 정신교육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군자금과 물자를 마련하여 중국과 만주의 항일독립단체에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황애덕은 1918년 홀 부인의 권유로 일본에 건너가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동경 여자유학생회'를 조직하여 유학중인 조선인 여자 유학생의 친목과 더불어 기독교 종교활동, 배일사상 고취와 애국심 고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19년 2월 8일에는 동경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거행된 2·8독립선언에 참여하여 주동학생으로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김마리아 송복신 등 여자 유학생들과 귀국하였으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3월 19일 추적해 온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8월 5일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에는 김마리아와 '대한애국부인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전국에 지부를 확장하여 독립 군자금을 모아 상하

이 임시정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모임뿐 아니라 상해와 하와이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성 애국단체들을 통합하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에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결국 3년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녀는 신앙의 힘으로 견디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수감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성경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922년에 가출옥된 황애덕은 이화학당 대학부에 편입하였고, 졸업 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후 조선YWCA연합회 헌장제정위원 겸 연합위원,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25년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1928년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서 농촌 사업을 연구하면서 농촌사업을 준비하다가 1929년 1월 귀국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이 농촌으로 가기를 꺼려하니 그들을 꼭 계몽시켜 주시오.” 하면서 교수로 초빙하는 협성여자신학교 채원 교장의 부탁을 받아들여 신학교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감옥생활을 할 때부터 농촌을 살리는 길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며 농촌운동을 구상했던 그녀는 협성여자신학교 안에 ‘농촌사업지도교육과’를 신설하고 학생들에게 농촌실정과 농촌사업의 필요성을 계몽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농촌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름방학 때에는 YWCA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황해도 수안으로 파견해 실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업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3년 동안 전개한 농촌계몽사업 결과 사면 30리 모든 남녀노소가 모두 한글을 터득했고 기독교인이 되어 술 담배 투전 노름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분위기도 쾌활해지게 되었다.”

그녀는 농촌운동을 이끄는 여성 기독교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당

시 그의 가르침을 받고 농촌운동에 헌신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이며 경기도 화성의 샘골에 정착하여 활동한 최용신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농촌계몽운동은 이후 여섯 개의 학교와 두 개의 교회를 세웠고, 이르는 곳마다 강습소와 예배처소를 설립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농촌계몽운동이 만주지역에까지 확장되자 그녀는 1935년 만주로 건너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하얼빈에서 한인 농민들이 굶주리고 빚에 시달리는 상황을 목격한 후 만주에서 가장 궁벽한 ‘경성현’이란 곳에 한인 농장을 건설하여 동포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켰고,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귀국하여 서울 근교의 광주 백현리에 농장을 마련하고 농촌생활을 하며 일체의 공적 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황애덕은 자신의 농토를 전부 소작인에게 분배해 주고 서울로 올라와 나라 재건운동을 시작했습니다. YWCA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여성운동가들과 독립촉성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고, 당시의 여성단체를 총망라한 ‘여성단체총연맹’을 조직하여 초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미국에 유학하였고, 6·25전쟁이 일어나자 한인 교민사회에서 구호물품을 모집하여 조국으로 보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전쟁 후 귀국하여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을 위한 한미 기술학교를 경영하였고, 기독교 여자절제회도 재건하여 총무로 활동하면서 갱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 1947년에는 서울 남산 기슭에 조경우 목사와 일신교회를 설립·건축하였고, 장로로 피택되어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1967년에는 2·8 독립선언과 3·1운동 등에 참여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규합하여 3·1 여성동지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71년 경기도 부평에서 별세하였으며, ‘건국포장’(1977년)과 ‘건국훈장 애국장’(1990년)을 받았습니다.

결론

황애덕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한 여성 엘리트입니다. 황애덕은 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일본과 미국에 유학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해서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였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지식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황애덕은 활동 초기에는 송죽회 조직이나 2·8독립선언, 3·1운동 등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생활 후 농촌을 살리는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황애덕은 교회를 기반으로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을 전개하여 당시 교회가 시대적이며 민족적인 과제에 적극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 줍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황애덕이 시대적 사회적 당면 과제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입니까?
2. 우리가 받은 혜택과 재능을 어떻게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430장(통 456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3과

수원 민족운동의 중심 김세환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582장(통 261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로마서 13:11~14
- 참고성경 : 출애굽기 3:7~12
- 요 절 :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롬 13:11)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3월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달입니다. 이에 민족운동에 헌신한 김세환(金世煥)을 소개합니다. 김세환은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한 수원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먼저 교육운동을 일으켜 수원 지역 근대교육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원상업강습소와 삼일여학교의 교사로 활동했으며, 폐

교 직전의 학교를 되살렸습니다.

또 김세환은 민족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이란 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그후에는 사회운동, 신간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수원이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족과 교회의 진로를 모색하는 일에 자신을 바친 분입니다.

본론

김세환은 1888년 수원 남수동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수원교회(수원종로교회)에 출석하여 착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고, 교회의 영향으로 교육가와 독립운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관립 외국어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중앙대학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귀국하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김세환은 수원상업회의소가 “상업에 의한 지식, 기능의 강습”을 목적으로 설립한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 수원중고등학교)에서 직조감독관, 소장으로 일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는 교육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13년에는 밀러(Lula A. Miller) 여선교사에게 발탁되어 삼일여학교(현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 학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교사 신축, 양잠 실습장 설치 등 학교 발전을 위해 크게 활동했을 뿐 아니라 자주 자리를 비우는 교장을 대신하여 학교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였습니다. 밀러 교장의 보고서에 기록된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여학교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유능한 학감 선생 지휘하에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 학교 부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름다운 나무 그늘로 덮여 있었습니

다. 많은 나무와 꽃들을 옮겨다 심었고 새로 산책로도 냈습니다. 우리 교사 김 씨는 학교 건물 벽에 도드라진 한국 지도를 조각해 붙임으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학교 앞 쪽에 흐르는 개울 위로 다리를 놓아 장마철에도 학생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세환의 활동으로 삼일여학교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학교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감으로서의 역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에는 ‘요시찰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밖에서도 학교를 위해 일하였습니다. 1940년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삼일여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수원 지역 유지들을 설득하여 학교 운영 자금을 지원케 함으로써 학교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김세환은 1919년 3·1운동에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YMCA간사인 박희도에게서 지금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고 있으므로 조선 독립을 할 때라는 말을 듣고 3·1운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가 민족대표 33인에 들지 못한 것은 독립운동이 일회적인 운동이 아니고, 제2·제3의 운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또 제1선에서 희생자들을 뒷바라지하는 이들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빛도 없이 뒤에서 활동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경기 충청도의 운동 책임자로 선임된 그는 김병제 목사(홍성교회)와 동석기 목사(남양교회)를 설득하여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3월 1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파고다 공원에서 열린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고, 식이 끝난 후에는 군중들과 만세를 부르면서 종로 무교정 경성일보사 앞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그후 숨어 지내다가 3월 13일에 체포되었지만 김세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단한 자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밝히며 재판을 받

았습니다.

“아무리 세계대세로 합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모든 물건을 대할 때 초목에서 흐르는 이슬도 눈물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에 정정당당히 조선사람은 권리를 갖고, 일본사람은 권리를 돌리어 보낼 시기가 올 줄 알았다”

1920년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석방된 후에는 수원읍에서 곡물상을 운영하며 사회활동가로,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명망가로 여러 사회운동에 관여하였습니다. 우선 출옥 직후 그는 ‘조선기독교창문사’(朝鮮基督教彰文社) 설립에 참여하여 기금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창문사는 당시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모여 한국인들의 주체적 기독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문서운동기관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세환은 1927년에 다시 활동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민족운동 진영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간회가 조직되고 각 지역에 그 지회 설립이 확산되자 그가 신간회 수원지회에서 지회장, 감사위원 등으로 역할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1929년에는 수원체육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후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해방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1945년 9월 16일 생을 마쳤습니다. 1963년 건국 무공훈장이 추서되었고 1968년 국립묘지 총렬대에 이장되었습니다.

결론

김세환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였고, 신앙을 기반으로 활동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두 분야에서 헌신하였습니다. 삼일여학교를 통한 교육활동과 3·1운동으로 대표되는 독립운동 참여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그에게 있어 다른 영역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민족

을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김세환은 과거의 인물로 현재 우리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기에 그를 현재의 인물로 되살려야 합니다.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통해 성장하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후학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해 주고자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교회와 우리선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교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울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해 봅시다.(독립기념관을 비롯한 민족운동 관련 유적지 답사 등)

- 찬 송 : 523장(통 262장, 어둔 죄악 길에서)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개화기의 신여성 하란사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191장(통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 기 도 : 맑은 이
- 성경봉독 : 요한복음 10:7~15
- 참고성경 : 히브리서 12:10~13
- 요 절 :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4월의 인물은 개화기의 신여성 하란사(河蘭史)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두는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당시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에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후처’란 신분적 제약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사회활동을 하였고, 자신이 공부한 신학문을 소외된 여성들에게 가르쳐 여성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졌습니다. 직접 선교사를 찾아가 이화학당 입학을 요청하였고, 젓먹이를 떼어 놓고 낯선 곳 미국으로 유학하여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하여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며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일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본론

하란사는 187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정부 관리인 하상기의 후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여유로움에 안주하지 않고 당시 개화의 물결을 받아들여 시대를 선도하는 여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란사는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96년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된 이야기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녀가 여성을 위한 신교육 기관인 이화학당에 입학하려고 지원하였으나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어느 날 밤, 이화학당 프라이 교사를 찾았습니다. 입학을 요청하면서 프라이 교사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갔던 등불을 입으로 훑고 불어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캄캄하기를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학문의 밝은 빛을 열어 줄 수 없겠느냐?”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녀의 열정에 프라이 교사가 감동하여 입학을 허락했다 합니다. 그후 그녀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란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영어 이름 ‘낸시’를 한자로 바꾼 것입니다. 성도 남편을 따랐기에 이때부터 ‘하란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는 일본에 유학하여 1년 동안 공부하다 귀국하였고, 1902년에는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당시 젓먹이가 있었지만 새 세상을 향한 학문의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학 자금을 받아 순조롭게 공부를 계속하여 1906년 웨슬리안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 일로 1908년 고종에게 훈장(은장)을 받는 영예도 차지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스크랜턴(M. F. Scranton) 대부인이 상동교회 안에 세운 영어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도부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로 과부나 기생같은 불우한 형편의 여성들과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혼여성들이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몇 년 후 성경학교로 바뀌었다가 협성여자신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랜 관습과 전통을 깨고 기혼여성으로 일본 미국에 유학했던 그녀로서는 큰 보람을 느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성경 등을 가르치는 교실 안의 교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행동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을 깨우쳐 한국감리교회 초기에 여성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1910년 9월 이화학당 안에 대학과가 신설되어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이 실시될 때 그녀는 유일한 한국인 교수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숙사 사감도 맡아 편지를 일일이 검열할 정도로 엄격하게 훈육하여 ‘호랑이 사감’이란 별칭도 얻었습니다.

하란사는 교육 현장에서뿐 아니라 강연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1907년 진명학교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자혜부인회에서 주최한 집회에서는 당대의 이름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1911년에는 영문으로 발행되는 선교 잡지에 당시의 지도급 인물인 윤치호의 글을 반박하는 글을 신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사실만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규 고등학교 졸업생이 그저 요리나 바느질하는 법을 알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학교들의 목적과 방향은 슬기로운 어머니, 충실한 아내 및 개화된 가정주부가 될 수 있는 신여성을 배출하는 것이지 요리사나 간호원, 침모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한 하란사는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1916년에는 한국감리교의 평신도 대표로 뉴욕에서 열린 미 감리회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여성 평신도의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미국 전역을 돌며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연설을 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사비와 교포들의 기금을 모아 1918년 정동제일교회에 한국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근대 음악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전도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3·1운동 때는 파이프 오르간 몸체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란사는 민족운동가로도 활약했습니다.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목사와 이필주 목사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 여행을 통해 당시 국제정세를 인식했기에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덕수궁을 드나들며 고종과 엄비의 자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고종과 선교사와의 연락을 매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신임한 고종은 궁중 패물을 군자금으로 주어 의친왕과 함께 나라 밖 일을 착수하도록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 일제 만행을 폭로하는 고종의 밑지를 파리강화회담에 전달하는 비밀 계획을 수행하려 했으나 1919년 1월 고종이 갑자기 승하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하란사는 고종이 승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경으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착 직후 교포들이 그녀를 위해 마련한 만찬회에 참석하여 먹은 음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온 선교사 벡커(A. L. Becker)는 그녀의 시체가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세간에도 일본 스파이로 활약한 배정자가 그녀를 미행했다는 소문이 나돈 것으로 보아,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독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녀의 공훈을 기려 1995년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결론

하란사는 시대의 제약을 극복하고 교회와 나라가 요구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여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양반의 후처가 되었지만 가정이란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녀가 도전하자 닫혀 있던 문이 열렸고, 이화학당과 정동제일교회를 통해 신학문과 새 세상을 배우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전하는 선각자가 되었습니다. 불우한 처지의 여성들을 깨우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나서게 하였습니다. 식민지 한국의 상황을 바꾸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 일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제약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말해 봅시다.
2. 가정과 교회에서 남녀의 권리와 평등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310장(통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5과

사회 개혁운동가 조병옥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340장(통 365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누가복음 5:36~39
- 참고성경 : 에베소서 4:21~24
- 요 절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 5:38)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5월에 소개하는 인물은 조병옥(趙炳玉)입니다. 그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회운동가, 정치가 등으로 역할한 인물입니다. 미국에 유학하여 철학박사를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혁신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사회와 교회로 하여금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일제 시기에는 한국교회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기독교가 민중들과 함께 하고 생활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기

반으로 신간회, 수양동지회 등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정치 활동에 직접 나서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본론

조병옥은 1894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인원은 병천교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병천 만세운동을 도모한 인물입니다. 조병옥은 공주 영명학교를 거쳐 평양 숭실학교와 배재학당, 연희전문학교에서 수학한 후 약혼자인 초기 전도인 노병선의 딸 노정면과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였고 1925년 “한국의 토지제도”란 제목의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며 1926년에 권사가 되어 주일학교 교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신흥우 등과 혁신의 주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미국의 ‘사회복음주의’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사회개혁을 통한 기독교인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습니다. 연희전문학교 경제학 강사로 근무하면서 신흥우 등 YMCA 중진인물들로 구성된 ‘태평양문제연구회’에서 활동하였으며, YMCA이사로서 지방순회 전도강연회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 1920년대 중반 반기독교운동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될 때, 그는 기독교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선 기독교의 당면한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는 이제 개척시대에서 발전적 시대로 접어들었고, 사회 및 문화 환경이 새로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교회는 이 새로운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첫째, 조선교회의 지위 문제이다. 언제까지 선교지로서의 조선교회가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통치하는 독립된 조선교

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종교와 과학의 조화 문제이다. 기독교의 운명은 과학과 악수 동맹하고 못함에 있으며,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을 기독교로 조화함이 우리의 의무다. 셋째, 사회사조와 운동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는 마땅히 사회 운동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갖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1927년에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제휴하여 창립한 민족운동단체 신간회(新幹會) 조직에 기독교 대표로 적극 참여하여 창립위원, 재정총무를 맡았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일제에 학생 탄압을 엄중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민중집회를 열 것을 계획했다가 신간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조병옥도 이에 관련되어 3년간 복역하였습니다.

1929년 5월에는 서울 인사동 중앙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기독신우회’를 창설했습니다. 기독신우회는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의 구체적인 성과인 동시에 신간회 운동의 산물로 조직된 단체로 “기독교주의의 민중화, 기독교주의의 실체화”를 주장하여 기독교 사회운동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독교가 성취해야 할 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한 것이었기에 기독신우회 선언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옮겨봅니다.

“우리는 속죄구령을 고조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사회복음주의를 중흥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 고통과 죄악으로 포위된 생을 타 세계에 전거시키려함 보다도 자유·평화·진리의 천국을 인간사회에 임하게 하여 기기에서 우리의 인격의 진선미를 완성코자 한다.”

1932년에는 조만식과 함께 경영난에 시달리는 조선일보 인수운동에 참여하여 조선일보사 전무 겸 영업국장에 취임하여 활동하였으며,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관련되어 2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수양동우회는 1926년에 설립된 안창호의 흥사단 계열의 국내 조직으로 겉으로는 인격수양과 민족개조를 표방한 수양단체였으나, 내적으로는 민족의식 고취와 민족 실력배양을 통한 주권회복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출옥 후 일제의 압력과 감시가 심해지자 서울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 해방이 될 때까지 지냈습니다.

해방 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건국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미군정의 초대 경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반탁운동 반대, 제주 4·3사건 진압 등 좌파 척결을 주도하였고,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에는 내무장관으로 취임하여 대구 사수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한편 1951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제16대 대한체육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후 이승만 대통령과 의견충돌로 결별하고 반독재투쟁에 나섰습니다. 1954년 5월 대구에서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55년 민주당 최고위원, 1956년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어 야당을 지도하였습니다. 1958년 민의원에 재선되었고,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신병으로 쓰러져 미국 월터리드 육군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중 별세하고 말았습니다(이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4·19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시신은 비행기로 옮겨져 1960년 2월 25일 국민장(國民葬)으로 장례를 치룬 후 수유리에 안장되었습니다. 1962년 3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결론

조병옥은 사회개혁을 통한 기독교의 민중화, 실체화에 앞장 선 인물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유학을 할 때 접한 사회복음주의 신학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가 귀국하여 활동을 시작한 때가 반기독교운동이 크게 확산되던 시기라 그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듣고 내적으로 반성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

니다. 그가 주도한 ‘기독신우회’는 이러한 면을 잘 드러내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한 예입니다.

해방 후에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그의 사상을 한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미군정하에서와 이승만 정권에서는 경찰 행정을 지휘하며 건국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결별한 후에는 야당인 민주당을 이끌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등 반독재투쟁을 주도하였지만 갑자기 쓰러진 후 별세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오늘의 한국사회를 위한 교회의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비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찬 송 : 462장(통 517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여성독립운동가 박현숙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204장(통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마가복음 4:1~9
- 참고성경 : 갈라디아서 6:6~10
- 요 절 :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막 4:8)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6월의 인물은 박현숙(朴賢淑)입니다. 그녀는 송의여학교에 입학하여 황애덕 선생(2월 19쪽)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생시절부터 1919년 3·1운동 때까지는 비밀결사단체인 송죽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해방까지는 감리교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북한의 재건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월남하여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 장로로 역할하며 교회를 발전시키는 일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본문

박현숙은 1896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끌려 5세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정진소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후 송의여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곳에서 그녀는 ‘송죽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송죽회는 1913년 송의여학교 교사 황애덕이 주도하여 조직한 한국 최초의 여성 비밀결사단체입니다. 송죽회 회원들은 ‘생일잔치’로 위장하고 매달 15일을 기해 모임을 갖고 회비를 모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엽장수, 떡장수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행상을 하였고, 자수 혹은 머리채를 잘라 팔기도 하였습니다.

1915년 송의여학교를 졸업한 후 박현숙은 전주의 기전여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주회’를 조직하고, 학생들의 신앙생활과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1917년 4월 송의여학교 교사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회장으로 선출되어 본격적으로 송죽회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송죽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운동 세력은 평양 만세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인 평양 남산현교회의 신흥식 목사에게 평양만세운동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송죽회 회원들은 태극기 제작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3월 1일 남산현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진 후 시내로 진출하여 장로교인들과 합류하여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현숙은 ‘신대한의 애국 청년 끓는 피가 뜨거워’로 시작하는 ‘혈성가’를 부르며 여성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일경의 혹독

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혈성가’를 대담하게 불러 독립의 기개를 굽히지 않았던 그녀는 1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8월 하순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출옥 후 독립운동가 김성업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편 평양 숭혜(崇慧)여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여 교육에 종사하였습니다.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에도 계속 투신하였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애국부인회’에서 평양감리교 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20년 10월 다시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집행유예로 출옥하였습니다.

출옥 후에는 평양 YWCA에 참여하여 문맹퇴치, 농촌사업 등을 통한 부녀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미감리회 여선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928년에는 서기, 1929년에는 부회장, 1930년에는 회장으로 선임되어 감리교 여성을 이끌었습니다. 남북의 두 감리교회가 합당한 후에는 평양지방 총무로 활동하면서 전국연합회 부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일제 말기인 1941년 2월에 개최한 만국부인기도회가 문제가 되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만국부인기도회는 지금도 매해 드리는 ‘세계여성기도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계의 기독교 여성들이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하루를 잡아 공동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주관하여 1930년대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일제는 당시 사용한 기도문 중 하나님 나라, 평화 등과 같은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이를 사간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도회 순서지를 각 지역에 발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박현숙은 또 다시 체포되어 한 달 가량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제의 기독교 통제가 더욱 악랄해져 기독교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김성업은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1937년에 검거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45년 여름 병보석으로 출감하였습니다.

해방 후 그녀는 조만식을 위시한 애국동지들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46년 신탁통치안이 가결되자 조만식 이윤영 김병연 등과 소련군 사령관 스치코프를 방문하여 신탁통치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월남하여 서울에 ‘송죽원’이란 고아원을 설립하였고, 1953년에는 송의여학교를 서울에서 재건하고 이사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길도 걸었습니다. 이승만과 ‘민족통일본부’ 여자부장, 입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952년 10월에는 무임소장관(정무제 2장관)으로 입각하여 20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1958년에는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김화), 1963년에는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전국구)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국회에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여 국가조찬기도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전국 여성단체최고위원, 3·1여성동지회 회장, 서울적십자사 자문위원장, 대한부인회 부총재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한편 1946년 10월부터는 월남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남산교회에 출석하여 1980년 마지막 날에 별세하기까지 장로의 직임을 다하였고, 1955년부터 1959년까지 두 기에 걸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남산교회의 반포동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 명예회장으로 역할하며 물심양면으로 교회에 기여하였고, 강원도 철원의 신흥교회(1967년)와 서울 도봉구의 창현교회(갈릴리교회, 1968년)를 개척하고 박현숙 장로 기념 예배당을 봉헌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론

박현숙은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된 평양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으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어린 여학생 신분에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일경에 체포되어서도 독립의 기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또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농촌사업과 문맹퇴치운동에 적극 나섰고, 감리교 여선교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교회여성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정치에 뛰어들어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평양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신탁통치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월남하여서는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장관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든 활동은 교회를 통해 그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응답의 표시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자신의 사회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524장(통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7 과

한국 오페라의 선구자 김자경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429장(통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마태복음 5:13~16
- 참고성경 : 이사야 60:1~3
- 요 절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김자경(金慈璟)은 한국 오페라의 선구자입니다. 그녀는 교회와 선교 학교를 통해 음악을 접하였고,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전공하였으나 성악에 더 재능이 있다는 학교의 제안에 따라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1941년 첫 독창회를 갖는 것으로 성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

다. 그후 한국 최초의 오페라 ‘춘희’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오페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1968년에는 ‘김자경 오페라단’을 창단하여 한국 오페라가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본론

김자경은 1917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화보통학교를 거쳐 루씨보통학교와 루씨여고를 졸업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김자경은 여덟 살 때 선교사에게 피아노를 배웠고, 서양 음악을 하려면 우리 음악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야금 장고 소리 민요 등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화여전에 입학하여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성악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악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 졸업을 1년 연장해서 성악공부를 하면 성악과 피아노 두 과의 졸업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장학금을 받고 성악과로 전과하여 채선엽 교수에게 레슨을 받았고 1940년 이화여전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 유학의 꿈을 접고 이화여고 교사가 되었고, 1945년부터는 이화여전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본격적인 음악 활동은 1941년 제1회 독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명동 시공관에서 공연한 한국 최초의 오페라 ‘춘희’에서 주인공 비올레타로 열연하였습니다. ‘춘희’는 오페라 인생의 막을 열어 주었습니다. 훗날 자서전을 통해 “춘희가 이어준 인연으로, 오페라에 살고 오페라에 죽는 인생을 살았고 ‘오씨 성에 이름은 페라’인 오서방과 결혼했다.”며 오페라와 춘희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한 춘희’라고 부릅니다.

1948년 8월에는 미국 줄리아드 음대에 유학하였고, 1950년 5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카네기 홀에서 독창회를 가져 그의 재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1987년 일흔 살의 나이로 37년 만에 다시 카네기 홀에서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1958년에 귀국하여 1983년까지 이화여대 성악과 교

수로 봉직하며 음악인 양성에 힘을 다했습니다. 1965년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학교 성악과 수료, 1994년 한양대학교대학원 국악과 수학 등으로 배움의 과정도 그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196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인 ‘김자경 오페라단’을 창단하고 첫 작품으로 ‘춘희’를 공연하여 한국 오페라 발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오페라 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였으며 신인 발굴 및 정기 공연과 지방 및 소극장 공연도 계속하여 한국에서 오페라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91년에는 사재 17억 원을 투여하여 김자경오페라단을 사단법인으로 바꾸었고, 신촌의 자택을 개조해 ‘김자경오페라연구원’을 열었습니다.

한편 1990년에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새 삶을 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해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별세한 지 28년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새벽이면 일어나 동쪽 창을 향해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이제는 데려가 주소서. 더는 힘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 동쪽 하늘의 태양이 가슴에 내리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속에서 어떤 외침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경아, 너는 28년 전에 남편과 죽었고 새로운 네가 그해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네 나이 이제 스물여덟 살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 순간 그녀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 출연할 일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첫 물음으로 그녀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묻자, “올해 나 이 스물여덟”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김자경은 스물여덟의 젊음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한강사랑음악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가곡과 민요,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정상급 성악가들을 통해 대중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19번의 독창회에서 나온 수익금을 불우아동복지기금과 기독교

100주년 선교자금, 홍난파 선생 흉상 건립금, 호스피스 건립기금, 맹인개 안수술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은관 문화훈장, 중앙일보 문화대상, 국민훈장석류장, 올해의 음악가상, 세종문화상, 프랑스 문화예술 훈장 등의 상을 받았고,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998년 8월 그녀가 매년 개최하는 ‘한강사랑음악회’에 등장하여 ‘별’을 노래하던 중 호흡이 가빠 노래를 중단하고 힘없이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그녀는 1999년 숙원 사업으로 생각하던 ‘김자경 예술학교’ 설립을 뒤로 남긴 채 인생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한 그녀의 아버지 김영환 목사와 날마다 그녀를 붙들고 “우리 자경이를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해 주소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평생 그를 붙들어 주는 힘이었습니다. 신촌의 대신교회에 출석하며 권사로서의 직임을 다하였고 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김자경은 한국 오페라를 개척하였고 그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 및 오페라에서 별종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4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오페라 ‘춘희’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이후 별세할 때까지 수많은 오페라에 출연하면서 오페라와 결혼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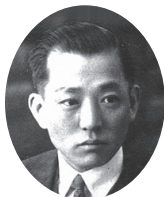
1968년에는 한국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이 일은 오페라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었으며 신인 발굴의 기회도 되어 한국에서 오페라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을 하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오페라를 사랑하고 오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한 춘희’라 불렀는데, 그것은 그녀가 개척하고 닦은 기반 위에서 오늘의 한국 음악과 오페라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 자신이 가진 재능을 교회와 사회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212장(통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일장기 제거의 주인공 이길용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502장(통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 기 도 : 맑은 이
- 성경봉독 : 빌립보서 3:12~14
- 참고성경 : 고린도전서 9:24~27
- 요 절 :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 3:12)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8월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길용(李吉用)은 신문사에서 체육 기자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그는 식민지 한국에서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민족 의식이 살아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

장기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또 ‘조선체육회’를 창립하면서 그 실무 작업을 담당하여 초창기 활동의 기반을 닦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각종 체육단체의 임원으로 식민지 한국 체육의 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운동기자단’을 조직하여 운동경기 보도의 전문화를 꾀하였고, 한국 체육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바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문

이길용은 1899년 경기도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동구 창영동에 거주했기에 일찍부터 감리교 신앙을 수용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존스 선교사가 설립한 감리교 선교학교인 인천 영화학교를 거쳐 감리교 개척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1916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후 일본 교토의 도지사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고 1918년 귀국하였습니다.

1919년 서울 용산철도강습소에 취직하여 대전역 역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3·1운동의 열기가 전국을 휩쓸자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을 활용하여 기미독립선언서와 상해 임시정부의 기밀서류를 철도를 통해 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제일감리교회에 출석하여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대전 지역 3·1운동과 야학운동의 중심역할을 하였습니다. 1920년에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고 자유 독립을 쟁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된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경고문’의 대전 지역 배포하는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년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뒤 1921년 6월 출소하였습니다.

출옥 후에도 그는 대전에 1923년 6월까지 머물며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옥고를 치르다 인연을 맺은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의 끈질긴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대전제일교회에 출석하며 서기훈 이명제 전도사와 대전 지역 3·1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대전 지

역의 상황과 국내 정보를 상해 임시정부에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후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겨 동아일보 인천지국 기자로 근무하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배재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조직된 ‘인배회’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배재학당 재학 때부터 출석했던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며 엽윳청년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조선일보사로 이적하였다가 송진우의 간곡한 부름을 받고 1927년부터 다시 동아일보사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체육 관련 기자로 활동하며 식민지 조선에서 스포츠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192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조선여자정구대회를 전담하였습니다. 1924년 11월에는 윤치호 신흥우와 함께 ‘조선체육회’를 창립해 초창기의 기반을 닦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후에도 각종 체육단체 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27년에는 조선운동기자단을 조직하여 운동경기의 전문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929년에는 한국 최초의 보이с카우트 단체인 ‘조선소년군총본부’의 이사를 맡아 청소년 계몽운동에 나섰고, 1929년에 조선정구협회 이사로도 활동하였고, 1934년에는 여성체육장려회의 이사와 서울육상경기연맹 창립총무, 아이스하키협회 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체육 활동을 보도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민족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운동선수의 모습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193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한 김은배·권태하 선수가 골인하는 사진에서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버렸습니다. 1936년 8월에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명예의 우리 손군 세계제패의 개가”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신동아에 실린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도 일장기를 지워버려 민족정

신을 일깨웠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이 일을 주도한 이길용은 동료들과 종로경찰서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은 뒤 40일 구류처분을 받았고 이후 동아일보 기자 활동은 물론 그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체육계 활동도 금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도 그는 일제에 대한 저항을 그치지 않아 감옥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다시 동양일보사에 복직하여 사업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 조선체육회를 재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고 상무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정부수립 후에는 서울특별시 고문, 이화여대 이사, 한국민주당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30년에는 동아일보에 「조선야구사」를, 1932년에는 신동아에 「여자정구 10년사」를 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것들은 그가 남긴 유명한 업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인정되어 1949년 10월 ‘대한체육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도망을 가는가?” 라며 당당히 서울에 남아 「대한체육사」 집필에 전념하다가 7월 17일 서울 성북동 집에서 내무서원에게 연행된 뒤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1989년 한국체육기자연맹에서 그의 정신과 삶을 기념해 ‘이길용 체육상’을 제정하여 매년 사상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결론

이길용은 감리교 신앙을 수용하고 감리교 선교학교를 통해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감리교 학교와 감리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전에 거주할 때는 대전제일교회를 통해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인천에 거주할 때는 배재학당과 관련된 인배회 활동을 통해 지역운동을 이끌었고, 서울에 거주하면서는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며 당시의 인사들과 교류하며 언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자신의 직업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대전 철도 역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경부선 철도를 상해임시정부와 연결되는 데

이용하였고,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할 때는 체육 관련 보도를 통해 조선의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전문화되고 생생한 필치를 이용하여 각종 경기들이 발전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가 취재 현장에서 경험한 실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 체육의 역사도 정리하여 한국 체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활용하여 신앙을 증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축구나 농구, 야구 등의 체육 활동을 통한 선교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360장(통 402장, 행군 나팔 소리에)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9과

‘바위고개’ 작곡가 이흥렬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21장(통 21장, 다 찬양하여라)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시편 98:1~9
- 참고성경 : 요한계시록 7:9~12
- 요 절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시 98:1)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 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그리워 그리워 눈물 납니다.”

한국인이 애창하는 가곡 중의 하나인 ‘바위고개’의 1절입니다. 극작가 이서향의 글에 이흥렬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흥렬(李興烈)은 일찍부터 음악적 소질을 드러냈기에 교회와 학교

에서 활동하며 음악가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연주가 되려 하였으나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암담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목격한 후 작곡가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보다 일반 백성이 슬픈 가슴을 달래며 부를 노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노래가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정신을 살릴 한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곡을 작곡하고 발표하여 많은 한국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곡사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의 슈베르트’가 되었습니다.

본론

이흥렬은 190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전도부인으로 활동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일찍부터 음악에 특출한 소질을 보였습니다. 교회 성가대나 오르간 연주에 참여했고 남다른 감상능력도 보였습니다. 원산 광명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일본에 유학하였습니다. 1927년 일본 도쿄음악대학에 입학하여 고학으로 공부하며 피아노를 전공하였고 1931년 귀국하였습니다. 한편 졸업 연주를 앞두고 A급이 모여 있는 3부에 나가기 위해 노력하던 그는 학교에서의 피아노 연습만으로는 부족하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향의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도 피아노 값 400원을 송금해 주어 아마하 100호 피아노를 구입해 졸업 연주를 무사히 마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국 이후 모교인 원산 광명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암담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보다 슬픈

가슴을 달래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래로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정신을 살리고자 작곡가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독학으로 작곡을 연구한 그는 가곡 '내 고향'을 첫 작품으로 1932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민족의 한과 염원을 노래한 '바위고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자장가의 효시로 소박한 아름다움과 원초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 주는 '자장가', 코스모스의 청초한 모습을 산뜻한 선율로 담은 '코스모스를 노래함',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부끄러움', 동경에 찬 봄의 서정을 읊은 '봄이 오면', 망향가이지만 곁고 평이하고 친근감 있는 선율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고향 그리워', 작곡가의 쾌활한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꽃구름 속에' 등 주옥같은 명곡을 작곡하였고, 1934년 그의 첫作品集 <이흥렬가곡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창작곡이 거의 없던 당시로서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한국 가곡사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선구자로 역할했습니다.

그가 시도한 새로운 방향은 서양음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 정서에 바탕을 둔 예술가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애창곡 수준과 외국가곡의 모방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국 가곡을 근대적 정서와 예술성이 한 차원 증대된 예술가곡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간단한 화성이나 찬송가 풍의 반주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의 곡들은 피아노를 전공했던 관계로 화려하고도 반주 테크닉이 활달하게 살아나게 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악곡의 구성에서도 전조를 포함해 대조적인 악구와 간주부를 두는 등의 형식상의 변화와 함께 각 곡들이 갖는 명쾌한 캐릭터로 그냥 귀에 스쳐 흘러가지 않고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항상 울림을 갖고 다시 부르고 싶은 내적 힘을 갖게 했습니다.

이 무렵 서울의 경성보육학교 교사로 초빙되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한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동제일

교회에 출석하면서 당대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참여한 정동제일교회의 성가대 지휘를 맡았습니다.

1936년 홍난파와 함께 경성방송관현악단을 조직하였고, 1937년에는 동요집 <꽃동산>을 출판하는 한편 경성피아노 3중주단을 조직했으며, 1938년에는 아폴로합창단을 조직하였습니다. 또한 1939년 3월부터 경성방송국이 가곡을 보급시키기 시작하면서 <가정가요 제1집>을 발간하고 방송을 통해 지도했는데 여기에 그의 가곡 ‘어머니의 마음’이 담겼으며, 그해 6월 창작운동을 독려하는 뜻에서 동아일보사가 개최한 창작발표회에 ‘바위고개’, ‘봄이 오면’, ‘자장가’가 다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경성음악대 강사, 이화여대 강사, 고려대 강사 등을 지냈고 서라벌예술학교 음악부장도 역임했습니다. 1945년에는 ‘고려음악협회’를 조직하였고, 1946년에는 광복 직후 좌익계열에서 조직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전국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진영의 200여 문필가들이 회합하여 그해 3월 13일 출범한 전조선문필가협회(全朝鮮文筆家協會)의 음악분과위원장을 맡는 한편, ‘대한교육음악협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에는 한국작곡가협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1957년부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그해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1963년부터는 숙명여대 음악대 교수와 음악대 학장으로 1974년 정년퇴임 때까지 재직했습니다. 그는 가곡 52편, 동요 65편, 군가 7편, 교가 138편 등 무려 400여 곡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깨끗하고 담백하면서도 서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곡들을 많이 남겼기에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품집으로 <너를 위하여>(1965, 제2작곡집), <아가>(1970, 제3작곡집) 등을 출판했으며, 음악이론서 <음악의 종합연구>(1958), <새로운 음악통론>(1962)을 저술하였습니다.

결론

이흥렬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그는 가곡 동요 교가 군가 등 400여 편의 많은 노래를 작곡하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것들 중에는 널리 애창되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한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가곡사에 전환점이 된 선구자로도 역할했습니다. 서양음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당시의 일반적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 정서에 바탕을 둔 차원이 다른 예술가곡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는 가곡을 보급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학교에서 후학들에게 음악을 지도하는 일에도 헌신하였습니다. 음악 이론서도 저술하여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음악이 우리 생활, 특히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봅시다.
2. 교회 성가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계획하고, 선교회 차원의 찬양단을 구성하여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570장(통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한글 사랑과 나라 사랑 김윤경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454장(통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전서 1:2~10
- 참고성경 : 요한복음 15:1~7
- 요 절 :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 1:3)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10월에 살펴볼 인물은 김윤경(金允經)입니다. 김윤경은 교회가 설립한 선교학교에서 신학문과 신앙을 배우면서 신앙인으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특히 한글학자 주시경의 한글학과 민족의식에 크게 감동받아 평생을 다른 길을 엿보지 않고 한길, 즉 한글연구와 한글 교육, 한글보급운동에만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고 활동한 시기가 일제가 지배하여 우리말과 글을 빼앗으려 한 시기였기에 그의 우리글 사랑과 열정은 독립운동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말과 글을 살리는 것이 민족의 얼을 살리는 것이고 그러한 활동은 곧바로 독립운동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론

김윤경은 1894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1906년 12세가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집안 모두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상경하여 우산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듬해 정동제일교회 최병헌 목사가 설립한 ‘서강의법학교’에서 이 학교를 인수하였기에 그는 의법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09년 최병헌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의 신앙적인 감화와 영향력에 힘입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11년에는 상동교회에서 운영하는 상동청년학원에 입학하여 주시경 선생에게서 한글학을 배웁니다. 주시경 선생은 그에게 “우리글이 우리의 오직 하나되는 보배임을 깨닫게 하였고, 나의 일생을 좌우할 감격을 받게” 하였으며, 그가 일생을 바쳐 한글연구와 한글교육, 한글보급운동에 앞장서도록 작용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그에게 국어학 지식만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그였기에 그는 상동청년학원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글연구에 평생을 바쳤을 뿐 아니라 일제 말기를 휩쓸 없이 통과할 수 있었던 혼치 않은 지식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3년 상동청년학원을 졸업한 그는 이후 4년 여 동안 마산 창신학교 고등과 교사로 있으면서 국어문법, 대수, 서양사 등을 가르쳤으며, “조선어 연구의 기초”라는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1917년 창신학교를 사임한 그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재학 당시 그는 3·1운동에 참가

하였고, 1921년 12월에는 주시경 선생의 문하생이었던 최두선 임경재 권덕규 장지영과 함께 한국 최초의 민간 학술단체인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우리말 글 연구와 정리 보급에 앞장섰으며, 졸업하던 1922년에는 흥사단의 전신인 수양동맹회의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1922년 4월 배화학당의 교사로 부임, 배화학당 고등과에서 가르치다가 후에는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무주임과 훈육주임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의 공부와 생활을 지도했으며 한글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남다른 헌신과 능력을 눈여겨본 부이 교장은 그에게 특별상금을 내렸으며, 이에 힘입어 1926년 일본에 건너가 닛교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졸업논문을 쓰고 1929년 귀국했습니다.

그해 4월 다시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조선어와 역사를 가르치다가,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정든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후 1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한편 1938년 1월, 옥중에 있을 때 유명한 「조선문자 급 어학사」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국어문자사와 국어학사를 다룬 것입니다. 우선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훈민정음의 창제와 변천, 훈민정음에 대한 여러 학설을 역사적으로 정리했으며, 개화기 이후에 나온 국어문법서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학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1942년 성신가정여학교 교사가 되어 교육 활동에 나섰지만, 그해 10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되어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1년 이상 갇은 고문과 형벌을 받으며 옥고를 치르다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어머니의 별세 소식도 모른 채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조선어학회 상무이사로, 국어부흥강습회 강사로 활약하였고 연희전문학교 접수위원이 되었습니다. 이어 연희전문학교 이사,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 봉직한 그는 연희대학교 문과대학장을 거쳐 1947년 총장 대리로 피택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주시경 선생의 문법체계를 이어받은 「나라말본」과 「중등말본」을 편찬하여 국어연구에 이바지하였고, 한글전용 가로쓰기 국어순화 등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모아 7권으로 펴낸 「김윤경전집」은 한글연구의 여러 업적과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1952년 문교부 사상지도원 전문위원, 국사편찬위원, 대학교육 심의위원, 교수요목개정심의회 국어위원 등에 선임되었으며, 이듬해 연희대학교 대학원장, 그리고 국어심의회위원에 선임되었습니다. 1954년 도서편찬심의위원에 위촉되었고, 1955년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해 학술회 회원이 되었고, 195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기독교교육공로상 수상과 함께 문교부에서 국어공로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 학술원종신회원이 되었으며, 1962년 교육임시특례법에 따라 연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그해 학술원에서 학술문화공로상을 수상했고, 1963년 문화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해부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로 국어학을 강의하다가 1969년 2월 3일 별세하였습니다. 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으며,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글연구와 교육사업을 통해 나라 사랑의 길을 실천했고, 주시경 선생의 인격과 학문에 깊은 감화를 받아 외솔 최현배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정신 선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장로로 시무하면서 기독교적 양심에 입각한 신앙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결론 김윤경은 주시경 선생의 가르침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전향했기에 그의 뒤를 이어 한글에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는 한글만을 사랑하였으며 한글을 갈고 닦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1921

년에는 주시경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해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여 우리말과 글 연구와 정리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일제 치하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통한 민족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조선문자 급 어학사」, 「나라말본」이란 책도 저술하여 우리 역사 이래 이어온 선각의 학문을 분석 체계화할 뿐 아니라 훈민정음의 창제와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여 국어연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한글 사랑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한 모범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2. 기독교에서 한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도 알아봅시다.

- 찬 송 : 314장(통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11 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회영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401장(통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 기 도 : 말은 이
- 성경봉독 : 출애굽기 32:30~35
- 참고성경 : 마태복음 19:16~22
- 요 절 :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32)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이회영(李會榮)은 조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였습니다. 일찍부터 항일의병을 지원하고 신교육을 보급하였고,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나라가 일제에 합병된 이후에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흑색공포단' 등을 통한 격렬한 무력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본론

이회영은 1867년 서울 저동에서 이조판서를 지낸 명문 가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 '소영'을 제외하고 그의 형제 6명 모두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헌신하였기에 '6영'으로 부르고 있으며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대표적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회영은 가정 분위기나 사회적 환경으로 볼 때 당연히 관계에 투신할 입장이었지만 벼슬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자유와 평등, 인권 사상을 몸소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노비들을 풀어 주기도 했고, 남의 집 노비들에게 존댓말을 썼으며, 적자와 서자의 차별을 폐하고, 부인들의 재가나 재혼을 장려했습니다. 특히 과부로 있던 누이동생을 거짓장사 지낸 후 재가시킨 일화는 아주 유명하며, 자신도 나중에 상처한 후 젊은 과부를 정식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1896년부터 항일의병과 신교육의 보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개성 인근 풍덕지방에 인삼밭을 일구었는데 6년 동안을 잘 키워 수확기를 앞둔 1902년 가을 어느 날, 도둑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사주를 받은 도둑은 경찰과 한편이 되어 무허가 재배를 구실로 도리어 이회영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창문을 부수며 경찰관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나흘간 강제구금 당했습니다. 이후 문중의 항의로 법적투쟁을 한 결과 사실이 밝혀져 이회영은 얼마간의 보상을 받고 곤욕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고종에게 알려져 크게 칭찬을 받았고 탁지부 주사로 임명되었으나, 끝

내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비밀리에 진행될 때, 그는 장유순 이상설 이시영과 을사조약 파기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후 나인영 기산도와 을사 5적 암살을 모의하였으나 이마저도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906년 초여름, 이상설 장유순 여준 이동녕 등과 의논하여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만주 용정촌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2세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후 국내 활동을 위해 귀환한 그는 상동교회 권사로 헌신하면서 1907년 '상동청년학원' 학감으로 취임하여 교육운동을 벌였습니다. 마침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와 협의하여 특사를 파견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릴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는 이 뜻을 잘 알고 지내던 내시 안호형을 통해 고종에게 전달했으며, 고종에게서 백지위임 밀서(대한제국 황제 신임장 및 친서)를 받아 이상설 이준 이위종으로 하여금 만국평화회의에 출석하여 을사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는 헤이그 특사 사건의 중요한 막후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상동학원을 거점으로 전덕기 양기탁 이동녕 이관직 안창호와 함께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10년 국내항일운동의 한계를 느낀 그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 근거지를 물색하고 돌아왔으며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자 망명을 결심하였습니다. 서둘러 재산을 처분한 후인 그해 12월 그의 6형제 가족들 40여 명을 이끌고 만주 요령성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로 망명하였습니다. 이듬해 4월 항일독립단체이자 교포들의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그 부속기관으로 빈 창고를 이용해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형 이석영의 사재를 털어 100여 리 떨어진 통화현 합니하에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여 본격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후 그는 국내 정세를 살피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를 오가며 활동하였습니다.

3·1운동 직전에는 이승훈 오세창과 고종의 중국망명계획을 세워 고종도 이를 승낙하였으나 갑작스런 별세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 일단 가담했으나, 방법론적 견해 차이로 결별하고, 이후 무정부주의와 그 행동노선을 추구하였습니다. 1923년 무정부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호남성 한수현에 한중합작 ‘이상농촌 양도촌’ 건설에 힘썼고, 1924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였으며, 1928년에는 동방무정부주의자대회에 “한국의 독립운동과 무정부주의 운동”이라는 제하의 글을 보내어 이 논문의 취지가 동 대회 결의안으로 채택되게 하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중국과 일본의 독립지사들이 상해로 집결하여 그해 10월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비밀행동조직인 ‘흑색공포단’ 등을 통한 격렬한 무력항일투쟁도 벌여나갔습니다. 1932년에는 침체된 무장독립투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만주에 항일의용군의 결성과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한 후 대련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상해 밀정에게 정보가 누설되어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일경과 중국수상서원에게 검거되어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1972년 국립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1985년 ‘육영회’란 이름으로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우당기념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회영은 조선의 명문대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권세가의 길을 걷지 않고 당시 사회의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는 개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데에는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를 만나 감화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 일하라는 부름에 응답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한일합방 후에는 중국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운영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선구자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그후 독립투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며, 광복군 태동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시다.
2.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찬 송 : 220장(통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12과



사랑의 인술 김병서

- 조용한 기도 : 다함께
- 찬 송 : 329장(통 267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 기 도 : 맑은 이
- 성경봉독 : 누가복음 10:25~37
- 참고성경 : 고린도후서 9:6~12
- 요 절 :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6~37)
- 말씀증거 : 사회자

서론

올해의 마지막 달에 살펴볼 인물은 김병서(金秉瑞)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공부한 인물입니다. 그는 의로 선교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공부를 하였고 세브란스전문학교에 진학하여 훈련을 받은 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는 해주의 구세병원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구세병원에 홀 선교사가 원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홀과 함께 근무하면서 구세요양원을 설립하여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실 발행도 구상하여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의료 활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겼습니다.

본론

김병서는 1893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의사로 아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고자 유신학교에 유학하게 했으며, 미감리회 의료선교사 노튼의 조수가 되어 예수 믿고 의학과 영어 독일어를 배우게 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선각자였습니다.

1913년 해주에 노튼기념병원과 남본정감리교회를 세운 노튼은 김병서를 불러 약국 일을 맡기는 한편 의학을 가르쳤고 1917년에는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도록 하였으며, 그는 재학 중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세브란스의전을 채 마치지 않고 수료하였습니다.

한편 3·1운동을 앞두고 남본정감리교회에서 열린 모임에서 박희도 오세창 김병서 정재용이 황해도 대표로 선임되어 상경하였는데, 마침 이날 사정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한 그는 구세병원(노튼기념병원을 개칭) 직원들과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때 일경이 돌에 걸려 넘어지며 자기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제는 이를 김병서가 찔러 죽였다고 체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1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의사면허까지 취소당하였습니다. 1920년 말 출감한 그는 조선약학교를 졸업(1921~23)하고 약제사가 되어 구세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무렵 그는 남본정감리교회의 전도사(장로)로 활동하였으며 황해도 평신도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1926년 셔우드 홀이 내한하여 구세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김병서는 동갑내기인 홀과 친하게 지내며 적극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업으로 결핵요양소를 설립하는 데 합의하고 1928년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인 구세요양원과 결핵위생학교를 설립해 결핵퇴치를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해주도립병원 의료의과장 김형익의 권유로 1930년 한지의사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더 좋은 결핵요양소를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일본요양소를 시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인공기흉법’과 ‘자외선치료법’을 배워와 한국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을 가지고 와서 홀에게 “일본사람들이 이것을 하니 우리도 하면 어떨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홀이 받아들인 후 준비 과정을 거쳐 1932년 12월 3일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해 결핵퇴치운동의 새 기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에 처음에는 거북선을 도안하였지만 일본 관리의 반대로 서울의 남대문을 도안하여 발행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실을 발행한 지 얼마 안 되어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주재소에 갔습니다. 주재소 주임이 마치 큰 죄인을 다루듯이, “이게 뭐요, 우표요?” 하였습니다. “그건 크리스마스 실 아닙니까?”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임이 다시 “문제는 우매한 민중에게 우표 대신 이걸 붙이게 한 거요. 이건 순전히 고의적인 일ियो. 우체국에서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겠소? 독립이니 뭐니 날뛰는 자보다 당신이 더 악질ियो.”하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래, 어찌자는 거요?”하고 대답하자 주임은 “당장 집어치우시오. 말 안 들으면 집어 넣겠소.” 위협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실의 역사와 폐병퇴치 자금이 긴요하다는 긴 설명을 한 끝에야 풀려났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는 안창호 선생이 폐결핵에 걸려 요양할 때 치료하여 준 것이 빌미가 되어 황해도 흥사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체포되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혐의로 석방되었지만 요양원에서는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 천태리에 가서 황해의원을 개업하는 동시에 백

천복음농민학교를 설립하여 형편상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농촌청소년들에게 학문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일제말기 강제징용과 징병이 실시되면서 조만식 선생이 지원병 격려 연설을 강요받아 난처해졌을 때, 김병서가 폐결핵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설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도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려로 해방 후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김병서가 15인 위원회 무임소위원으로 피택, 의료계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신세를 진 공산당원 임홍수가 밤중에 찾아와 그가 17번째 숙청대상이니 피신하라고 일러주어 38선을 넘어 월남하였습니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대구로 피난하여 황해의원을 개업하고 주로 피난민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대구피난민회장으로 일하면서 삼덕동(동인동) 동인교회와 유치원을 설립하였습니다.

1959년 66세의 김병서는 여생을 편히 쉬시라는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양평 서종면 문호리에 월급 5천 원을 받는 공의 자리를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좀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는 수가의 절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5천 원의 수입이 있으니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의술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호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곳은 숲을 구워 팔면서 생활하는 벽지마을이었고, 특히 겨울에는 노름과 술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산을 사서 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개간토록 하였으며, 그 땅에 딸기를 심어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폐쇄되었던 장로교회(문호교회)를 다시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술과 농촌운동, 교회재건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 사랑의 인술을 펼친 그는 1976년 6월 25일(83세)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론

김병서는 해주의 구세병원을 통해 사랑의 인술을 나누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외면당했던 결핵환자를 위해 구세요양원을 설립하고 그들을 입원시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퇴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는 일을 홀 선교사와 함께 창안하여 1932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안창호 선생의 치료를 빌미로 민족운동에 연관되었다고 체포되어 고통을 당하고, 구세요양원에서도 추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벽지에 가서 진료를 하면서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학문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을 베풀며 헌신하라는 주님의 부름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위한 질문

1.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교회와 선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찬 송 : 218장(통 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토의 및 광고 : 사회자
- 주기도문 : 다함께

집필자

조이제 목사

중부연회 김포지방 샘솟는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 위원(2000~200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운영위원 역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감사(현)

201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월례회공과

감리교회를 빛낸 평신도 II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10-73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TEL. 02-399-4346~8 / FAX. 02-399-4350

.....
비매품